



▲ 유인석 현장소장

## 불안전 사항에 즉각 반응하여 안전하고 바르게 교정

— 성원건설(주) 법무부 시화 신축공사현장 —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는 안전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 안전과 관련하여 몸에서 우러러 나온 행동이 오늘 안전업무를 하게된 계기인 문일성 안전과장은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회사는 공적인 조직이라, 여러분이 드넓은 바다 갯벌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또 하나의 계절을 보내려는지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섭게 내리 짚는 가을 해살에 어쩔줄 몰라 하는 사이 갯벌은 온대간데 없고 반듯한 건축물이 그 대지를 채울 것입니다.”

대지 7만여평에 국내 최대의 교정시설 20개동이 분산 자리잡아가고 있는 법무부 시화 신축공사현장은 성원건설이 앞장서 또하나의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곳이다. 넓은 현장 특성으로 인력 관리가 쉽지 않지만 유인석 소장을 필두로 무재해 준공을 향한 여정은 시작됐다.

이미 3개 현장에서 무재해 준공을 마무리 한 유인석 소장은, 이 곳 법무부 시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무재해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즉각 반응, 즉각 조치

현장 경영 방침은 “즉각 반응”이다. 경영 방침에서 강한 힘이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해야할 일은 많고, 시킬 일도 많은데, 일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일이 밀려 결국 사고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에 유인석 소장은 “즉각 반응”을 현장 경영 방침으로 세웠다.

이 경영방침은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일에 적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



늘 할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극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발생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위험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오늘 찾은 현장에는 250여명의 근로자가 오고 가며, 분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재 하나 흐트러져 있지 않고, 있을 자리에 반듯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제조공장에서 출고를 앞둔 제품을 연상케 한다.

평소 현장이 깨끗해야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유인석 소장의 신념에 맞게 그 어느 현장보다 더 철저히 현장 정리 정돈을 하고 있다.

## 시작은 함께 일은 프로답게

이 곳 현장에는 다른 현장보다 다소 늦은 아침 7시가 되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에어로빅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즉각 반응과 정리정돈 외에 아침체조에 대해 집착하리만큼 철저한 유인석 소장의 극성은 타 현장에서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아침 6시부터 출근이 시작되지만 유인석 소장은 현장 순찰을 먼저 시작한다. 이유인 즉, 아침체조에 열외자 한명 없이 하기 위해 7만 여명이 되는 현장 곳곳을 40여분 동안 다니고 난 뒤 7시에 아침체조를 시작한다.

잠자리에서 일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의 몸을 깨우고, 전날 음주·과로에 따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아침 체조라는 지론을 갖고 있기에 이처럼 유별난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에 취우치지도 않는다. 신나는 음악을 통해 심신에 활력을 불어 넣고, 스트레칭 위주의 에어로빅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하루를 가뿐히 시작한다. 이제는 근로자들도 아침체조를 하지 않으면 몸이 이상

하다고 할 만큼 없어서는 안될 아침 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유별난 아침체조를 강조하는데 있어 유인석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현장 기사 시절 때 아침체조 시간을 보면 현장소장이나 임원이 나오는 날에는 모든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나와 아침체조에 참여하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반이상이 참석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아침체조가 되고 마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기에,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들을 위해 억척스럽게 아침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곳 현장에서는 매일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현장에서는 프로답게 안전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 함께하는 안전

현장에서는 안전제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전에 반하여 공기를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전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공기와 맞물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따진다.

그러나 이 곳 현장에서는 일일안전제도를 통해 함께하는 안전을 수행하고 있다. 성원건설에서 유인석 소장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이 곳 현장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17명이 되는 직원이 일일 안전관리자가 되어 현장을 순찰하고, 불안전사항을 체크하는데 매일 현장소장이 직접 챙긴다.

협력사들도 수동적이지 않다. 성원건설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각 협력사에 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 내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협력사에서도 안전관리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전에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를 가지고 모든 안전을 챙겨주다보니 협력사들이 마치 원청사가 안전을 다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주는 것만 받는 수동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성원건설의 협력사는 그 선례를 뒤엎어 자율안전을 뿌리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무재해의 연결고리는 이 현장이 준공되는 2007년도까지 이어져, 유인석 소장 개인적으로 4개 현장 연속 무재해 준공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전정터와 같은 현장에서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곳 사람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최종덕 기자〉

